

전근대 시기 ‘釣魚島諸島’에 대한 中·日의 영토인식 고찰*

신동규**

【국문초록】

본고는 전근대 시기에 한정해 중국과 일본이 釣魚島諸島에 대해서 어떠한 영토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고찰한 것으로 그 요점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明代에 류큐로 파견된 책봉사들의 기록들로부터 조어도제도가 중국영토로서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1534년 陳侃의 『使琉球錄』과 1562년 郭汝霖의 『重編使琉球錄』에 의하면, 姑米山(현 久米島)은 류큐(琉球)에 속하고, 조어도제도의 동쪽 끝에 위치한 赤嶼(현 大正島)는 류큐와 경계가 된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즉, 조어도제도 8개의 섬 중에서 제일 동쪽에 있는 赤嶼가 류큐의 경계라는 인식은 조어도제도가 중국 측의 영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明代의 해상방어책을 서술한 鄭若曾의 『鄭開陽雜著』에 기재된 『福建界』를 보더라도 조어도제도가 포함되어 있어 조어도제도에 대한 영토인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清代에 들어와서도 明代의 조어도제도 인식, 즉 赤嶼와 姑米山 사이를 국경으로서 보는 영토인식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1683년 책봉사였던 汪楫의 『使琉球雜錄』을 보면, 赤嶼(다이쇼지마)와 姑米山(쿠메지마) 사이에 ‘郊(또는 溝)’라는 곳을 중국과 류큐의 경계로서 인식하고 있었고, 또 1719년 책봉사절의 일원이었던 徐葆光는 현재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A-A00007).

**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일본학과 조교수.

의 쿠메지마가 류큐의 서남단 마지막 영토라는 인식을 가지고 『中山傳信錄』에서 姑米山에 대한 附記로 “류큐의 서남쪽 방면 경계의 鎮山”이라고 한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전근대 시기의 조어도는 ‘無主의 땅’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영토문제로서 조어도제도에 대한 선점권은 이미 전근대 시기에 중국이 먼저 확보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제어】

조어도, 조어도제도, 센카쿠제도, 쿠메지마, 영토인식, 류큐책봉사, 사유구록, 중산전신록, 정개양잡지.

◆ 차례

1. 머리말
2. 明代의 釣魚島諸島 인식
3. 清代의 釣魚島諸島 인식
4. 맷음말

1. 머리말

본고에서는 중국과 일본 및 대만과의 사이에서 현재진행형의 심각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조어도제도(釣魚島諸島)¹⁾를 중심으로 전근대 시기에 중국과 일본이 어떠한 영토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조어도제도는 동중국해 남서부, 즉 동경 123도 30분~124도 34분, 북위25도 44분에서 56분에 위치한 8개의 소군도를 말

1) 본고에서는 제일 빠른 시기에 사용된 명칭으로서 편의상 ‘조어도제도(釣魚島諸島)’로 통칭하는데, 특정 국가의 영토를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며, 본고에서 참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임을 밝혀 둔다.

한다. 한국에서는 조어도(釣魚島)나 센카쿠도(尖閣島)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釣魚島)', 대만에서는 '댜오위타이(釣魚臺)'라고 불리고 있다. 하지만, 1개의 섬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釣魚島及其附屬島嶼'라고도 하며, 대만에서는 '釣魚臺列嶼', 일본에서는 센카쿠제도(尖閣諸島)²⁾라고 불린다.

이곳이 영토분쟁지역으로서 문제가 된 것은 1968년 한국·일본·대만의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ECAFE(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가 동중국해 일대를 조사한 결과 대만의 북동쪽의 해저 약 20만km² 일대에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주변국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1970년 후반이 되어 중국 측에 의한 영유권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터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³⁾

중국과 일본 사이에 조어도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횟수는 너무나 많아 대표적인 분쟁 사건만 보면, 1996년 9월에 홍콩 주민이 센카쿠도 근해에서 시위 중에 익사하는 사고,⁴⁾ 2010년 9월 7일에는 중국어선이 조어도제도 부근에서 조업하다가 일본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 발견되어 정선을 권고하였으나,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순시선 2척을 파손한 중국인 선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사건⁵⁾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2012년 4월 16일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는 방문 중인 미국 워싱턴에서의 강연에서 센카쿠제도를 도쿄도(東京都)의 예산으로 매입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미 원래의 토지소유자인 민간인과도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고 주장⁶⁾하여 중·일

2) '센카쿠'라는 명칭은 메이지(明治)정부로부터 이 지역을 무상증여 받았던 쿠가 타츠시로(古賀辰四郎)의 요청을 받아 1900년 5월에 해당 지역을 조사한 쿠로이와 히사시(黒岩恒)가 명명한 것으로 『영국해군수로지』에 있는 'The Pinnacle Islands'라는 용어를 의역한 것이다(高橋庄五郎, 『尖閣列島ノート』, 青年出版社, 1979, 49~50쪽).

3) 芹田健太郎, 『日本の領土』, 中央公論新社, 2010, 121~122쪽.

4) 박종귀, 『아시아의 분쟁』, 새로운 사람들, 2000, 287쪽.

5) 「產經新聞」(2010년 9월 8일).

간의 외교관계에 불씨를 던지고 있다.

일본 극우주의자이기도 한 이시하라의 발언은 이전부터 조어도제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분쟁지역을 매입한다는 이번 발언은 “도쿄도가 일본을 지킨다.”고 하여 일본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4월 29일에는 「일본외국특파원협회」에서 “티베트를 정치적으로 말살한 뒤에 패권주의로 이번에는 센카쿠(尖閣)을 노리고 있다.”고 중국을 자극함과 동시에 “센카쿠 문제로 중국에 벌벌 떨고 있다면, 그 사이에 五星紅旗(중국의 국기)의 여섯 번째 별은 작은 ‘히노마루(日の丸, 일본의 국기)’가 될지도 모른다.”⁷⁾고 하면서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며, 일본의 조어도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극렬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시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93%의 회답자가 이시하라의 조어도제도 매입계획에 찬성하고 있으며,⁸⁾ 일본정부를 포함해 수많은 일본인들은 조어도제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정당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전근대 일본의 영토는 고대 이래 규슈(九州)·시코쿠(四國)·혼슈(本州)라고 하는 ‘三島 영토관’이 정착되어 있었고, 이러한 영토관이 에도막부(江戸幕府) 말기까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⁹⁾을 염두에 두면 과연 일본의 영토주장이 얼마만큼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 의문이 든다. 더욱이 조어도제도 문제를 이른 시기에 역사적으로 고찰한 이노우에 키요시(井上清)는 『尖閣列島・釣魚諸島の史的解

6) 「東京都が尖閣諸島買い取り:所有者と合意、年内に契約」, 「時事通信」, 2012년 4월 16일, 2012/06/01 검색.

7) 「產經新聞」(2012년 5월 30일).

8) 「尖閣諸島購入に突き進む石原都知事」, 「JAPAN REALTIME」, 2012년 4월 25일, 2012년 4월 25일자, 2012/06/04 검색.

9) 申東珪, 「일본의 私撰地圖로 본 전근대 ‘三島領土觀’에 대한 고찰」, 『전근대 일본의 영토인식』, 동북아역사재단, 2012년 하반기 출간예정.

明』¹⁰⁾에서 일본이 1895년 이래 '無主地'를 '선점'하여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琉球國中山世鑑』과 『籌海圖編』·『順風相送』을 비롯해 『使琉球雜錄』·『琉球國志略』 등의 『琉球冊封使錄』을 이용해 조어도제도가 단 한 번도 일본이나 류큐(琉球)에 부속된 적이 없는 중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전근대의 사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본고가 시사 받은 점이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저서의 서문과 본문에 걸쳐 일본의 센카쿠도 영유권 주장이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재발이 아닌가라는 위기감을 환기시키고 있어¹¹⁾ 사방에 영토문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주변국을 끌어들이는 지금의 일본을 생각하면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유지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다만, 이노우에의 주장은 일본에서 거의 유일한 것이지만, 이후 그의 연구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본에서 파장을 초래하며 비판을 받았다. 특히, 그중에서도 오쿠하라 토시오(奥原敏雄)는 「明代および清代における尖閣列島の法的地位」, 「尖閣列島問題と井上清論文」과 「動かぬ尖閣列島の日本領有權-井上清論文の「歴史的虚構」をあばく」, 「尖閣列島領有權の根據」, 「尖閣列島-中國及び臺灣の領有論據批判」 등 다수의 연구를 발표하고 있는데,¹²⁾ 거의 같은 내용으로

10) 井上清, 『尖閣列島-釣魚諸島の史的解明』, 第三書館, 1996, 序. 원래 이 저서는 『「尖閣」列島-釣魚諸島の史的解明』, 現代評論社, 1972의 제1부 「釣魚諸島の歴史と領有權」만을 발췌하여 1996년에 상기의 제목으로 출판한 것이다.

11) 상동.

12) 奥原敏雄, 「尖閣列島の領有權問題」, 『沖縄』 58, 1971 ; 同, 「明代および清代における尖閣列島の法的地位」, 『季刊 沖縄』 63, 1972 ; 同, 「尖閣列島問題と井上清論文」, 『朝日アジアレビュー』 4-1, 1973 ; 同, 「動かぬ尖閣列島の日本領有權-井上清論文の「歴史的虚構」をあばく」, 『日本及日本人』, 1515, 1973 ; 同, 「尖閣列島領有權の根據」, 『中央公論』 93-7, 1978 ; 同, 「尖閣列島-中國及び臺灣の領有權論據批判」, 『AFA

이노우에가 주장한 중국의 조어도제도 선점에 대해 법리적 무효론과 사료해석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문부교관을 지내기도 했던 하라다 노부오(原田禹雄)는 『尖閣諸島-冊封琉球使錄を讀む』¹³⁾의 서문에서 “내용이 궁색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 이노우에 키요시의 그 책은 제대로 된 역사학적 서술이라고는, 다시 말하면 史的解明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노우에의 연구를 강렬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이노우에가 이용한 사료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해석과 비판을 가하여 조어도제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동일선상에 서서 국제법학자인 세리타 켄타로(芹田健太郎)도 『日本の領土』¹⁴⁾에서 조어도제도가 福建省과 대만의 부속도서가 아니었다는 논증을 펼쳐 전술한 이노우에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작 세리타의 연구에서는 전근대 조어도제도의 일본영유권을 주장할 만한 사료적 근거와 논증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는 점이다. 그만큼 주장의 토대가 될 만한 일본 측의 사료 부재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노우에의 연구에 대한 일본 내의 비판은 외교적, 학술적, 교양적 차원을 불문하고 기본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외에 전근대를 연구범위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1895년 이후 조어도제도의 일본 영유권에 대해서 언급한 연구들이 상당수 있다. 대표적으로 호사카 마사야스(保阪正康)는 『歴史でたどる領土問題の眞實』¹⁵⁾의 제5장에서 1895년 일본의 ‘센카쿠제도 편입’에 의한 일본영유권을

シリーズ』 78, アジア親善交流協會, 1979. 한편, 이노우에 키요시(井上清)와 오쿠하라 토시오(奥原敏雄)의 논쟁에 대해서는 다카하시 쇼고로(高橋庄五郎)의 『尖閣列島ノート』, 青年出版社, 1979, 191~207쪽)을 참조.

13) 原田禹雄, 『尖閣諸島-冊封琉球使錄を讀む』, 榎樹書林, 2006, 서문.

14) 芹田健太郎, 앞의 책, 135~151쪽.

15) 保阪正康, 『歴史でたどる領土問題の眞實』, 朝日新書309, 朝日新聞出版, 2011, 199~226쪽.

언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戰後의 중·일 간 영토분쟁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왜곡된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과 일본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호사카의 논조는 2012년에 토고 카즈히고(東郷和彦)와 공동 출판한 『日本の領土問題-北方四島, 竹島, 尖閣諸島』¹⁶⁾에서도 전후처리와 '無主의 땅'에 대한 선점의 법리를 주장하며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히라마츠 시게오(平松茂雄)도 마찬가지로 그는 『中國はいかに國境を書き換えてきたのか』¹⁷⁾에서 조어도제도는 메이지(明治) 초두 이래 일본의 영토였으며, 특히 1895년 이후 일본의 영토가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방위대학 교수를 역임한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는 『日本の國境問題』¹⁸⁾에서 "1870년대 이전에 센카쿠제도가 일본의 영토였던 적은 없었다."(同書 61쪽)는 점을 지적하고는 있는데, 역시 1895년 이후 일본의 조어도제도 선점에 의한 영유권 확보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의 결론 부분에는 일본의 영토분쟁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마찰의 회피,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제3자의 개입), 중일간의 군사력 사용의 금지, 다각적 상호의존관계의 구축 등 다양한 방책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일본의 행보를 가늠해본다는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한편, 한국에서도 이어도 문제, 독도문제가 중국이나 일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어 金明基의 「獨島 問題와 釣魚島 問題의 比較考察」,¹⁹⁾ 남종호의 「중·일 양국의 조어도열도 영유권분쟁과 이어도문제」²⁰⁾

16) 保阪正康/東郷和彦, 『日本の領土問題-北方四島, 竹島, 尖閣諸島』, 角川書店, 2012, 115~144쪽.

17) 平松茂雄, 『中國はいかに國境を書き換えてきたのか』, 草思社, 2011, 223~228쪽.

18) 孫崎享, 『日本の國境問題』, ちくま親書905, 筑摩書房, 2011. 다만, "1870년대 이전에 센카쿠제도가 일본의 영토였던 적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1870년대 이전에 어디의 영토에 포함되고 있었는가에 대한 구체적 논증이나 근거되는 사료는 없다.

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그 연장선상에서 중·일간의 조어도제도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들어와 일정의 성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전근대 시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근대 이후나 1970년대 이후의 분쟁을 대상으로 국제법적인 양국 주장과 입장에 대한 비교가 주된 소재였다.²¹⁾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볼 때, 일본의 조어도제도 영유권의 주장 근거는 일본정부가 조어도제도의 오키나와현(沖繩縣) 편입을 비공개로 결정하여 일본영토로 규정한 1895년 1월 14일의 이른바 ‘센카쿠제도 편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제도를 둘러싼 논쟁의 요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1971년 「釣魚臺列嶼의 주권에 관한 臺灣當局外交部聲明」,²²⁾ 1971년 「釣魚島 등의 주권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²³⁾과 1972년 「센카쿠제도의 영유

19) 金明基, 「獨島 問題와 釣魚島 問題의 比較考察」, 『강원법학』 10, 1998.

20) 남종호, 「중·일 양국의 조어도열도 영유권분쟁과 이어도문제」, 『한중사회과학연구』 23, 2012.

21) 최장근, 「일본의 영토분쟁 – 일본 제국주의 흔적과 내셔널리즘 –」, 백산자료원, 2005, 305~332쪽 ; 박정현, 「근대 중국의 해양인식과 영유권 분쟁」, 『아세아연구』 48-4, 2005 ; 김선화, 「중·일간 조어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고찰」, 『海事法研究』 19-2, 2007 ; 이은자, 「한중간 영토 분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시아문화연구』 14, 2008, 183~188쪽 ; 이문기, 「중국의 해양도서 분쟁 대응전략: 조어도와 남사군도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0-3, 2008, 33~39쪽 ; 李昌偉, 「중국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54-1, 2009, 137~140쪽 ; 이정태, 「조어도 분쟁에서 ‘무주지 선점론’과 ‘역사주권론’」, 『국제정치연구』 14-1, 2011 ; 권태환, 「일·중 영유권 갈등과 전망 – 尖閣열도를 중심으로 –」, 『한일군사문화연구』 11, 2011 ; 진필수, 「센카쿠(댜오위타이)제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 이시가키시 의회의 과정에 국심과 지역활성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47, 2012.

22) 浦野起央, 『尖閣諸島・琉球・中國-日中國際關係史』, 增補版, 三和書籍, 2010, 237~239쪽, [자료12] 「釣魚臺列嶼の主權に關する臺灣當局外交部聲明」 참조.

23) 상동, 239~240쪽, [자료13] 「釣魚島などの主權に關する中華人民共和國

권문제에 대한 일본 외무성 기본 견해²⁴⁾를 비롯해 중·일 양국의 주장을 정리한 연구²⁵⁾를 토대로 조어도제도를 둘러싼 논쟁점을 살펴보면, ① 역사적으로 어느 쪽이 선점하고 있었는가, ② 역사적으로 어느 쪽이 먼저 영유를 주장했는가, ③ 1895년 '센카쿠제도의 일본편입'을 어떻게 보는가 (일본편입의 적법성 문제), ④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어도제도가 오키나와의 일부로 처리되었는가, 대만의 일부로 처리되었는가(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문제)라는 네 가지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는 전근대의 釣魚島諸島만을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③과 ④의 논쟁점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삼고 ①과 ②에 한정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술한 ①과 ②의 논쟁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조어도제도에 대한 영토인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전근대, 즉 중세와 근세시기의 문헌에 대한 재검토와 본고에서 새롭게 소개하는 사료들을 중심으로 조어도제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가를 국경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검증하고, 둘째는 중·일 간 조어도제도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위치한 전근대 시기의 조어도제도가 과연 '無主의 땅'인지, 아니면 어느 한 쪽에 선점권이 있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물론, 그간 선행연구에서 누락되어 왔던 문헌과 논점에 대해서도 새롭게 검토할 것이다. 다만 본고의 목적이 어느 특정 국가의 조어도제도 영유권을 강화시키거나 찬성하는 논리로서의 연구가 아니라는 것도 여기서 먼저 밝혀두도록 하겠다.

外交部聲明」 참조

24) 상동, 241~242쪽, [자료15] 「尖閣諸島の領有権問題についての日本外務省基本見解」 참조.

25) 奥原敏雄, 「尖閣列島領有権の法理-日・中・臺の主張の根據と對立点」, 『日本及日本人』 1507, 1972 ; 上地龍典, 『尖閣列島と竹島:中國・韓國との領土問題』, 教育史, 1978, 83~102쪽 ; 濱川今日子, 「尖閣諸島の領有をめぐる論点 - 日中兩國の見解を中心に - 」, 『調査と情報』 565, 2007 ; 浦野起央, 앞의 책, 13~32쪽 ; 芹田健太郎, 앞의 책, 123~166쪽 ; 孫崎享, 앞의 책, 58~72쪽.

2. 明代의 釣魚島諸島 인식

조어도제도는 주지한 바와 같이 동중국해 남서부에 위치한 8개의 소군도로서 현재 일본이 1895년 이후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실효지배라고 하더라도 이곳에 관한 전근대(중세·근세) 시기의 문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노우에 키요시(井上清)의 연구²⁶⁾에 의하면, 메이지 이전 일본의 문헌으로서 그나마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저술한 『三國通覽圖說』의 附圖인 「琉球三省并三十六圖之圖」 단 1건뿐이며, 당시 류큐(琉球)의 문헌으로도 『琉球國中山世鑑』(1650, 권 5), 류큐의 지리학자 테이준소쿠(程順則)가 저술한 『指南廣義』의 「針路條記」와 附圖뿐이 없다. 또한, 류큐인에게 조어도제도는 明의 福州에서 나하(那霸)까지 오는 항로에 해당되는 것 이외에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류큐에서 조어도제도까지는 역풍과 역류였기 때문에 당시의 항해술로는 다가설 수 없는 곳으로 류큐인은 중국인을 통해서만 이곳의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조어도제도와 관련된 상당수의 문헌들이 전근대에 작성되고 있었다. 바로 중국에서 류큐로 파견된 책봉사절의 왕래가 있었기 때문인데, 전근대 시기(明·清)에 파견된 책봉사는 1372년부터 시작되어 1866년까지 확인된 것만 24회로 이 기간 동안에 이른바 琉球冊封使의 기록이 다수 남아 있다([표 1] 「琉球冊封使 일람」 참조).²⁷⁾

26) 井上清, 앞의 책, 24~25쪽. 더욱이 이노우에에 의하면, 『琉球國中山世鑑』도 중국의 책봉사 陳侃의 『使琉球錄』으로부터 중국의 福州에서부터 나하(那霸)에 이르는 항로 관련 기사를 초록하면서 '釣魚嶼'라는 명칭이 나와 있을 뿐이라고 한다.

27) [표 1]의 「琉球冊封使 일람」은 우라노 타츠오(浦野起央)의 연구(앞의 책, 62~63쪽)와 하라다 노부오(原田禹雄)의 연구(앞의 책, 8~9쪽), 夫馬進編, 『使琉球錄解題及び研究:研究成果報告書』(京都大學文學部東洋史研究室, 1998)을 참조하여 작성함.

[표 1] 琉球冊封使 일람

횟수	연도 (책봉사도착)	왕조	정사명	수봉국왕	사록명칭
1	1372(洪武5)	明朝	楊載	察度	
2	1404(永樂2)	"	時中	武寧	
3	1416(永樂14)	"	陳季若	他魯每	
4	1425(洪熙元年)	"	柴山	尙巴志	
5	1443(正統8)	"	餘忻	尙忠	
6	1447(正統12)	"	陳傳	尙思達	
7	1452(景泰3)	"	陳模	尙金福	
8	1456(景泰7)	"	李秉彝	尙泰久	
9	1463(天順7)	"	潘榮	尙德	
10	1472(成化8)	"	官榮	尙圓	
11	1479(成化15)	"	薰旻	尙真	
12	1534(嘉靖13)	"	陳侃	尙清	陳侃(『使琉球錄』)
13	1562(嘉靖40)	"	郭汝霖	尙元	郭汝霖(『重編使琉球錄』)
14	1579(萬曆7)	"	蕭崇業	尙永	蕭崇業/謝杰(『使琉球錄』)
15	1606(萬曆34)	"	夏子陽	尙寧	夏子陽(『使琉球錄』)
16	1633(崇禎6)	"	杜三策	尙豐	
17	1663(康熙2)	清朝	張學禮	尙質	張學禮(『使琉球紀』『中山紀略』)
18	1683(康熙22)	"	汪楫	尙貞	汪楫(『使琉球雜錄』『中山沿革志』『冊封疏鈔』)
19	1719(康熙58)	"	海寶	尙敬	徐葆光(『中山傳信錄』)
20	1756(乾隆21)	"	全魁	尙穆	周煌(『琉球國志略』)
21	1800(嘉慶5)	"	趙文楷	尙溫	李鼎元(『使琉球記』)
22	1808(嘉慶13)	"	齊鰐		齊鰐/費錫章(『續琉球國志畧』)
23	1838(道光18)	"	林鴻年	尙育	
24	1866(同治5)	"	趙新	尙泰	趙新(『續琉球國志略』)

이들 사료에 대해서는 전술한 이노우에의 연구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고 있지만,²⁸⁾ 이 중에서 조어도제도와 관련된 가장 빠른 기록은 1534년에 류큐에 도착한 책봉사로 정사 陳侃이 기록한 『使琉球錄』이다.

여기에는 조어도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이고 있다.

[사료 1]

(1534년 5월) ① 9일, 어슴푸레 작은 산이 보였는데, 곧 小琉球이다. 10일, 남풍이 심히 빠르게 불어와 배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래도 바다의 흐름에 따라 갔는데, 그럼에도 심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② 平嘉山을 지나, 魚島를 지나, 黃毛嶼를 지나, 赤嶼를 지났는데, 눈감을 틈이 없었다. 하루 밤낮 사이에 3일의 거리를 나아갔다. 오랑캐의 배는 둑이 작아 능히 미치지 못하여 서로 잃어버려 뒤쳐졌다. ③ 11일 저녁, 古米山(久米島)를 보았다. 즉 류큐(琉球)에 속하는 것이다. 夷人(琉球人)은 배에서 북을 치고 춤을 추며, 집에 도착한 것을 기뻐하였다. 밤이 지나 동틀 무렵 바람이 동쪽으로 바뀌어 한 치를 나아갔다 한 자를 물러섰다 하다가 그 본래 갈 곳을 잃었다. ④ 또 하루가 지나 비로소 그 산에 이르렀는데, 夷人(琉球人)이 작은 나룻배를 타고 와서 내문하여 夷通事에게 말을 전하고 그대로 떠났다. 13일, 곧이어 그 나라에 도착하였다.²⁹⁾

[사료 1]의 밑줄 ①를 보면, 5월 9일 小琉球에 도착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대만을 말하는 것이다.³⁰⁾ 밑줄 ②에서는 平嘉山, 魚島, 黃毛

28) 井上清, 앞의 책, 24~41쪽.

29) 陳侃, 『使琉球錄』(『沖繩の歴史史情報』第8卷, 重点領域研究「沖繩の歴史情報研究」CD-ROM版研究成果報告書, URL:www.tulips.tsukuba.ac.jp/limedio/dlam/B1241191/1/vol08/8-5.htm). 이하 이 자료는 「沖繩の歴史情報研究CD-ROM版(第8卷)」으로 약칭하여 사용함. “九日, 隱隱見一小山, 乃小琉球也. 十日, 南風甚迅, 舟行如飛. 然順流而下, 亦不甚動. 過平嘉山, 過釣魚嶼, 過黃毛嶼, 過赤嶼, 目不暇接. 一晝夜兼三日之程, 夷舟帆小, 不能及, 相失在後. 十一日夕, 見古米山, 乃屬琉球者, 夷人鼓舞於舟, 喜達於家. 夜行徹曉, 風轉而東, 進寸退尺, 失其故處. 又竟一日, 始至其山, 有夷人駕小舟來問, 夷通事與之語而去. 十三日, 風少助順, 卽抵其國.”

30) 小琉球라는 지역은 원래 대만의 屏東縣 琉球鄉을 말하며, 대만 사람은 이 곳을 小琉球라고도 부른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만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와 류큐(琉球)의 일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료 1]의 『使琉球錄』에 보이는 小琉球의 경우는 대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大琉球는 일반적으로 오키나와(沖繩) 본도 지역을 말한다.

嶼, 赤嶼를 지났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平嘉山은 彭佳嶼, 釣魚嶼는 釣魚島, 黃毛嶼는 黃尾嶼(중국명)로 현재 일본명으로 쿠바지마(久場島)를 가리키고, 赤嶼는 赤尾嶼(중국명)로 현재 일본명으로는 다이쇼지마(大正島)를 가리키며 당시 책봉사들이 조어도제도를 항로로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통은 3일 걸리는데, 빠른 바람을 타고 하루 만에 이곳까지 도착했다고 한다. 또한, 밑줄 ④에서는 11일 저녁에 古米山, 즉 현재의 쿠메지마(久米島)를 보았는데, 이곳은 류큐에 속한다고 당시 책봉사의 정사였던 陳侃은 기록하고 있으며, 밑줄 ④를 보면, 책봉사들이 결국 12일에 류큐 본도의 근해에 이르러서 13일에 도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본고에서 언급된 지명들의 위치에 대해서는 하기의 [지도 1] 「조어도제도의 위치와 지명 및 책봉사 항로」를 참조).



[지도 1] 조어도제도의 위치와 지명 및 책봉사 항로

*본 지도는 구글맵스(<http://maps.google.co.kr/>)를 참조하여 필자가 일본지명과 중국지명을 넣어 편집한 것이며, 「조어도제도의 확대도」부분은 필자가 위치를 파악한 후 그려 넣은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 ④의 부분에 기술된 부분으로 古米山, 즉 구메지마(久米島)를 보았는데, 류큐(琉球)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것은 쿠메지마가 류큐의 영토라는 의미이며, 그 이전은 어느 나라와의 경계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당연히 중국과의 경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福州를 출발하여 대만을 거쳐 平嘉山(彭佳嶼) → 釣魚嶼(釣魚島) → 黃毛嶼(黃尾嶼, 久場島) → 赤嶼(赤尾嶼, 大正島)의 항로를 거치면서 단 한 번도 소속 영유권을 언급하지 않다가 구메지마(久米島)를 보고 류큐에 속하는 곳이라고 한 것은 그 이전까지는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이점은 1562년 책봉사인 郭汝霖의 『重編使琉球錄』에서 더 명확해진다.

[사료 2]

閏5월 1일, 釣嶼(釣魚島)를 통과했고, 3일에 赤嶼(赤尾嶼, 大正島)에 이르렀다. 赤嶼는 류큐(琉球)지방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다시 하루의 바람으로 가면, 곧바로 姑米山(久米島)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랴, 병예(屏翳, 바람의 신)가 멋대로 하여 작은 티끌조차 움직이지 않는구나. 조수는 평탄하고 파도는 잠잠하였으며, 해양의 웅장하고 장대한 경관은 실로 기이하였다.³¹⁾

위의 [사료 2] 밑줄 부분에서도 釣魚島를 통과한 후 赤嶼, 즉 중국명으로 赤尾嶼, 일본명으로 다이쇼지마(大正島)에 이르렀는데, 이 赤嶼가 류큐지방의 경계가 되는 산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료 1]의 ④에서 “古米山(久米島)를 보았다. 즉 류큐(琉球)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기술과 종합하여 생각해보면, 현재의 다이쇼지마(大正島)와 쿠메지마(久米島) 두 섬을 기점으로 明과 류큐의 경계가 되고 있어 다

31) 郭汝霖, 『重編使琉球錄』二卷(『四庫全書存目叢書史部』, 雜史類49, 齊魯書社, 1996). “閏五月初一日過釣嶼, 初三日至赤嶼焉. 赤嶼者界琉球地方山也. 再一日之風, 卽可望姑米山矣. 奈何屏翳馳纖塵不動. 潮平浪靜, 海洋大觀貞奇絕也.”

이소지마 이전까지가 明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세리타 겐타로는 조어도제도가 원래 아무도 선점하지 않았던 '무주의 땅'이었기 때문에 1895년부터 실효적 지배를 했던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³²⁾ 오쿠하라 토시오는 「尖閣列島の領有權問題」에서 '冊封使錄의 증거가치'를 논하면서 이들 사료는 단지 쿠메지마(久米島)가 류큐의 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센카쿠열도가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³³⁾ 또한, 하라다 노부오(原田禹雄)는 『明史』 권323 列傳의 外國4를 보면 鷄籠, 즉 대만이 외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小琉球=대만'은 명대에 중국 고유의 영토가 아니었다고 하며, 小琉球를 중국령으로 보는 이노우에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라고 부정하고 있다.³⁴⁾ 즉, 하라다의 주장은 반대로 생각하면, 대만이 중국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어도제도는 중국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오히려 대만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하기의 [사료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만에는 영토를 영유할 주권과 국가라는 것이 없었다.

[사료 3]

ⓐ 雞籠山은 彭湖嶼의 동북쪽에 있으며, 옛 이름은 北港으로 또한 東番이라고도 부르는데, 去泉州와 상당히 가깝다. 그 땅에 깊은 산과 큰 못이 많으며, 취락이 별과 같이 흩어져 있다. ⓑ 君長이 없으며, 15개의 단체가 있고, 그 단체는 많으면 천여 명, 적으면 혹은 500~600명이다. 요역과 부과되는 세금이 없고, 여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자로 하여금 號令을 맡긴다. 비록 해중에 있지만, 혹독한 바다를 두려워하여 배를 조정하는 것이 서투르며, 늙어 죽을 때까지 隣國과의 왕래가 없다.³⁵⁾

32) 芹田健太郎, 『島の領有と經濟水域の境界確定』, 有信堂高文社, 1999, 215~221쪽 ; 芹田健太郎, 앞의 책, 151~161쪽.

33) 奥原敏雄, 「尖閣列島の領有權問題」, 『沖繩』 58, 1971.

34) 原田禹雄, 앞의 책, 21쪽.

35) 『明史』 권323, 外國4, 雞籠條. “雞籠山在彭湖嶼東北，故名北港，又名東番，去泉州甚邇。地多深山大澤，聚落星散。無君長，有十五社，社多者

위의 사료는 『明史』 鷄籠條로서 밑줄 ①부분을 보면, 雞籠山(정확하게는 현재 대만의 基隆市를 말하지만, 소유구와 마찬가지의 의미로서 현재의 대만을 가리킨다.)은 彭湖嶼(彭湖島)의 동북쪽에 있고 옛 이름은 北港, 또는 東番이라고 하며, 밑줄 ②에서는 君長이 없어 단지 15개의 단체가 있을 뿐이며, 요역과 세금이 없고 여자가 많아 남자가 단지 명령을 내릴 뿐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즉, 대만에는 그 어떠한 권력도 존재하지 않았던 곳이며, 특정 지역을 영유할 만한 주권이나 권력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더욱이 위의 사료 후술 부분을 보면, “영락제 때 정화가 동서양을 편력했는데, 보배를 바치지 않은 것을 연유로 두려워한 후에 東番만이 멀리 피하여 이르지 않았다.”³⁶⁾는 기술이 있어 明의 지배력의 영향권 하에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사료상의 기술이지만, 대만에 권력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어도제도가 일본에 영유권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사료 1]과 [사료 2]를 살펴보면, 적어도 조어도제도를 포함한 적서(赤嶼, 赤尾嶼), 즉 다이쇼지마(大正島) 이전까지의 항로에 보이는 제 지역은 明의 세력 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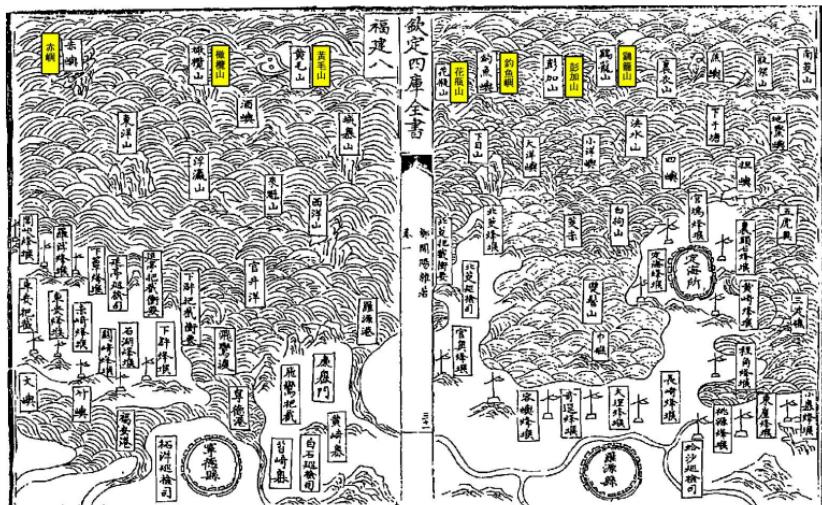
한편, 조어도제도가 明의 영토인식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보다 명확한 사료가 있는데, 바로 明代에 왜구침구에 대한 해상방어와 강구방어의 방책을 서술한 鄭若曾(1503-1570)의 『鄭開陽雜著』(1562)이다. 여기에는 각 지역의 海圖가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萬里海上防圖論上」의 福建界를 보면([지도 2] 참조),³⁷⁾ 鷄籠山, 彭加山(彭佳嶼), 釣魚嶼

千人, 少或五六百人. 無徭賦, 以子女多者爲雄, 聽其號令. 雖居海中, 酷畏海, 不善操舟, 老死不與鄰國往來.”

36) 상동. “永樂時, 鄭和徧歷東西洋, 麋不獻琛恐後, 獨東番遠避不至.”

37) 鄭若曾, 『鄭開陽雜著』 권1, 「萬里海上防圖論上」, 福建界, 福建八(『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이후 『四庫全書』로 약칭). 참고로 『鄭開陽雜著』 권8 「海防一覽」의 「第六幅東南向」에도 鷄籠山, 彭加山, 北山, 釣魚嶼,

(釣魚島), 花瓶山(花瓶嶼), 黃毛山(黃尾嶼), 赤嶼(赤尾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花瓶山이 釣魚島의 다음에 그려지고 있어 위치관계에 오류가 있어 보이지만,³⁸⁾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합한 순서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 지도가 해상방어를 위해 그려진 지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당연히 釣魚嶼, 黃毛山, 赤嶼 등의 조어도제도는 明의 지배하에 있었고, 福建界라는 명칭으로부터도 이는 조어도제도가 明의 경계 안에 포함된다고 하는 영토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동시기에 같은 계통의 문헌으로서 胡宗憲이 편찬한 『籌海圖編』(권1)에도 보이고 있다.([지도 3] 참조).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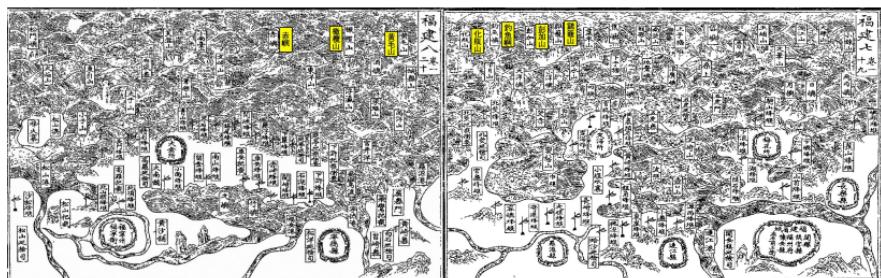


[지도 2] 『鄭開陽雜著』(권1)의 「萬里海上防圖論上」(福建八)

黃毛山, 花瓶山, 赤嶼 등 수많은 섬들이 그려지고 있다.

38) 원래 福建에서 류큐까지의 항로 순서대로라면, 鷄籠山→花瓶山→彭佳山→釣魚嶼→黃毛山→赤嶼의 순서가 정확하다.

39) 胡宗憲, 『籌海圖編』권1, 福建界, 福建七·福建八(『四庫全書』). 위의 [지도 3]은 福建七과 福建八을 편집하여 붙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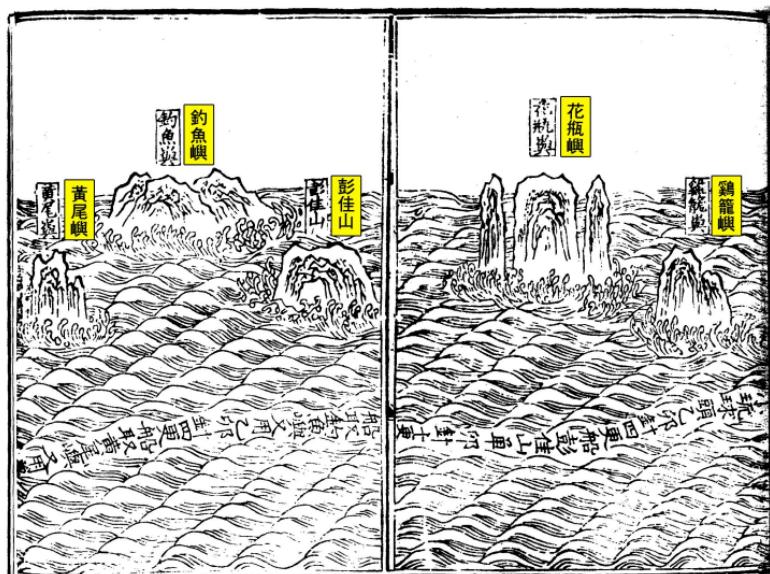
[지도 3] 『籌海圖編』(권1)의 福建界(福建七~福建八)

이외에 明代의 영토인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상당수의 자료에서 조어도제도와 관계된 명칭들이 보이고 있다. 대부분은 류큐까지 왕래하는 항로를 표기한 것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면, 『鄭開陽雜著』의 「福建使往大琉球鍼路」⁴⁰⁾에는 梅花 → 小琉球 → 鷄籠嶼 → 花瓶嶼 → 彭嘉山 → 釣魚嶼 → 黃麻嶼 → 赤坎嶼 → 古米山 → 馬嵒山 → 大琉球(那霸)로의 항로가 서술되어 있고, 1579년 제14차 책봉사인 蕭崇業과 四傑의 『使琉球錄』에 수록된 「琉球過海圖」([지도 4] 참조)⁴¹⁾에는 복건에서 류큐까지 이르는 과정의 島嶼들을 항로의 방향에 준하여 순차적으로 기입하고 있는데, 梅花頭 → 東沙山 → 小琉球 → 彭佳山 → 釣魚嶼(釣魚島) → 黃尾嶼 → 赤嶼 → 粘米山 → 琉球의 루트로 조어도제도를 경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06년 제15차 책봉사인 夏子陽의 『使琉球錄』⁴²⁾에도 小琉球 → 彭佳山 → 花瓶嶼

40) 鄭若曾, 『鄭開陽雜著』 권7, 「琉球圖說」, 「福建使往大琉球鍼路」(『四庫全書』).

41) 蕭崇業·謝杰, 『使琉球錄』卷首, 「琉球過海圖」(『沖繩の歴史情報研究CD-ROM版(第8巻)』). “梅花頭正南風東沙山, 用單辰針六更, 船又用辰巽針二更. 船小琉球頭乙卯針四更, 船彭佳山單卯針十更, 船取釣魚嶼, 又用乙卯針四更, 船取黃尾嶼, 又用單卯針五更, 船取赤嶼, 用單卯針伍更, 船取粘米山, 又乙卯針六更, 船取馬齒山直到琉球.” 한편, 「琉球過海圖」는 전체 7화인데, 여기서는 조어도제도 부분 2화만을 편집함.

42) 夏子陽, 『使琉球錄』(『沖繩の歴史情報研究CD-ROM版(第8巻)』). “二十六



[지도 4] 『使琉球錄』의 「琉球過海圖」 일부

→ 釣魚嶼→黃尾嶼 → 粘米山 → 琉球의 루트가 이용되고 있다. 물론, 이들 루트로 이용된 장소들이 직접적인 영토인식의 표출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일본의 전근대 사료에 거의 없는 제1급 사료로서 전술한 『使琉球錄』, 『重編使琉球錄』, 『鄭開陽雜著』 등과 함께 조어

日，過平佳山，花瓶嶼。二十七日，風忽微細，舟不行，而浪反顛急，舟人以爲怪事，請作彩舟禳之，而仍請余輩拜禱於神。甫拜畢，南風驟起，人咸異焉。午後，過釣魚嶼。次日，過黃尾嶼。是夜，風急浪狂，舵牙連折。連日所過水皆深黑色，宛如濁溝積水，或又如○色，憶前『使錄補遺』稱，‘去由滄水入黑水’，信哉言矣。二十九日，望見粘米山，夷人喜甚，以爲漸達其家。午後，有小棹乘風忽忽而來，問之，爲粘米山頭目，望余舟而迎者，獻海螺數枚，余等令少賞之。夷通事從余舟行者，因令先馳入報。是日，舟人喜溢眉端，其暈船嘔○，連日不能興者，亦皆有起色矣。三十日，過土那奇山，復有一小夷舟來○，即令導引前行。午後，望見琉球山，殊爲懼懼，然彼國尙尙未及知。比遣官并引港船至，時已夜矣。舟人疑有礁，不敢進，即從其地泊焉。”

도제도에 대한 중국의 영토인식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판단된다.

3. 清代의 釣魚島諸島 인식

清代에 들어와서도 류큐로의 책봉사는 파견되고 있었지만, 명대와 같은 책봉체제 하에서의 안정된 파견은 아니었다. 그것은 1609년에 류큐가 시마즈씨(島津氏)의 침공으로 사츠마번(薩摩藩)을 경유한 幕藩體制에 편입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은 明과 에도막부(江戶幕府) 사이에서 양속관계라는 특수한 형태의 외교관계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더욱이 1644년 清이 북경을 함락시켜 이른바 明·清交替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대륙의 남부에서는 南明 정부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류큐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明·清과의 외교관계로 인해 상당한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의 류큐에 대해 토미야마 카즈유키(豊見山和行)는 “류큐의 明·청교체기 당시 외교자세는 ‘小國’의 존립을 위해 明·清, 그리고 三藩·清 모두에게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자세는 幕藩制國家의 승인을 받으면서 전개했다. 환언하면, 류큐는 늘 시마즈씨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 속에 있었다.”⁴³⁾고 평가할 만큼 그 국가적 측면에서의 자주성을 상실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663년 清으로부터의 제1차 책봉사가 파견되었는데, 류큐 측에서는 해당초 명확한 책봉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었고, 3년 전에 화재로 소실된 首里城은 재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더욱이 사전에 통지된 책봉사의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접대에 혼란이 있었지만, 土通事 謝必振의 적절한 대응으로 정사 張學禮 등은 무사하게 책봉의식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⁴⁴⁾ 이때의 책봉사행의 기록은 張學

43) 豊見山和行, 『琉球王國の外交と王權』, 吉川弘文館, 2004, 78쪽.

44) 西里喜行, 「明清交替期の中琉日關係再考-琉球國王の冊封問題を中心 に」, 『International journal of Okinawan studies』 1-1, 2010, 21~34쪽.

禮의 『使琉球紀』에 남아 있는데, 역시 明代와 마찬가지의 루트, 즉 조어도제도를 경유해 류큐에 도착하고 있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사행의 경로에 대한 지명이나 명칭 등의 기재가 거의 없고, 또 원래 목적지였던 나하(那霸)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날씨 등으로 인해 硫黃山(현재 硫黃島)이 보이는 류큐의 北山(현재의 奄美大島)과 일본의 경계지역에 도착하였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⁴⁵⁾

그런데, 1683년의 책봉사였던 汪楫의 『使琉球雜錄』에는 조어도제도의 영유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아 여기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해 보도록 하겠다. 약간 길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사료 4]

海圖를 보면, 東沙山을 지나고 후에 小琉球, 鷄籠嶼, 花瓶嶼의 여러 산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 ① 24일, 새벽이 되어 산을 보니 彭佳山이었다. 여러 산들은 언제 지나가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辰刻(오전 8시)에 彭佳島를 지나酉刻(오후 6시)에 드디어 釣魚嶼를 지났다. 배는 마치 하늘을 높이 나는 것 같았고, 때때로 배는 기울어질 때도 있었다. 守備가 선례에 따라 免朝牌를 걸어둘 것을 청하였기에 그것을 허락했다. 파도는 결국 조용해졌다. ② 25일 섬을 보았는데, 응당 앞의 것은 黃尾嶼, 뒤의 것은 赤嶼일 것이다. 얼마 아가서 赤嶼에 이르렀는데, 黃尾嶼는 아직도 보이지 않았다. 해질녘에 郊[혹은 溝이라고도 쓴다]를 지났는데,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었다. 살아있는 돼지와 양을 1마리씩 던지고, 5斗의 쌀죽을 뿐였으며, 종이를 태웠다. 배에서는 징을 울리고 북을 쳤으며, 여러 군인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벳전을 구부려보면서 적을 막아내려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오랫동안 행했는데, 비로소 멈추었다. ③ “郊라는 것은 어

45) 張學禮, 『使琉球紀』(馬俊良輯, 『龍威秘書』 7集, 早稻田大學圖書館 소장, 청구번호:文庫01_01521). “十五日, 有風自北來. 又見一山如長蛇, 蜿蜒水中. 至晚抵山下, 見柴薪堆積, 知有居民. 恐有礁石不敢近, 遷山行以待天明. 居民驚疑, 遷入深山. 差王大夫鄭通使, 上山探問云, 是琉球北山與日本交界. 舉舟歡忭. 隨有地方官, 進水薪. 居民亦至, 間所見小山云, ‘乃尤家埠硫黃山也’. 北去日本, 東去弱水洋矣.”

떠한 의미로부터 말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니, “中外의 경계입니다.”라는 것이다. ④ “경계는 무엇으로 분별하여 정하는가?”라고 말하니, “주량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지난 곳은 마침 그곳에 해당되는 곳이며, 억측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먹을 것을 바친 것과 병사의 恩威가 어울려 구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赤嶼를 지난 후에 지도를 보았다. 응당 赤坎嶼를 지나면, 비로소 姑米山(久米島)에 도착할 것이다. 26일에 어느덧 이미 馬齒山에 도착했다. 돌아보니, 姑米山은 왔던 길에 옆으로 펼쳐있었다. 그러나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지나왔던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⁴⁶⁾

위의 사료 밑줄 ④를 보면, 6월 24일 汪楫 등의 책봉사절은 彭佳島를 지나 오후 6시 무렵에 釣魚嶼(釣魚島)를 지났으며, 밑줄 ⑤로부터 25일에는 赤嶼(赤尾嶼, 大正島)를 지났고, 해질녘에 ‘郊’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郊’라는 것은 ‘국경’, ‘끝’이나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使琉球雜錄』의 원문에는 ‘或作溝(혹은 溝이라고도 쓴다)’라는 부기가 붙어 있다. ‘溝’라는 용어는 ‘도랑’이나 ‘해자’, ‘사이를 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徐葆光이 ‘郊’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

46) 汪楫, 『使琉球雜錄』(『尖閣諸島問題』사이트, http://www.geocities.jp/tanaka_kunitaka/senkaku/). 본 사료는 동 사이트 「중국의 문헌」에 원문화상자료를 이용함. 한편, 전술한 「沖繩の歴史情報研究CD-ROM版(第8巻)」에도 동 사료가 수록되어 있으나, 조어도제도 관련 부분만이 삭제되어 비공개로 되어 있음. “按海圖, 過東沙山後應過小琉球鷄籠嶼花瓶嶼諸山. 及二十四日天明, 見山則彭佳山也. 不如諸山何時飛越. 辰刻過彭佳山, 西刻遂過釣魚嶼. 船如凌空而行, 時復欹側. 守備請循例, 掛免朝牌許之. 浪竟卒. 二十五日見山, 應先黃尾後赤嶼. 無何遂至赤嶼, 未見黃尾嶼也. 薄暮過郊[或作溝], 風濤大作. 投生豬羊各一, 澆五斗米粥, 焚紙. 船鳴鉦擊鼓, 諸軍皆甲露, 乃俯舷作禦敵狀, 久之始息. 間郊之義何取曰, 中外之界也. 界拏何辨曰, 懸揣耳, 然頃者恰當其處, 非臆度也. 食之復兵之恩威并濟之義也. 過赤嶼後接圖. 應過赤坎嶼, 始至姑米山. 乃二十六日倏忽已至馬齒山, 回望姑米橫亘來路. 而舟中人皆過之不覺.” 위에서 ‘[]’ 표기는 원문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을 의미함.

즉, 徐葆光이 '郊'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곳이 류큐와의 경계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로서 '溝'라는 용어는 1606년 夏子陽의 『使琉球錄』, 1719년 徐葆光의 『中山傳信錄』,⁴⁷⁾ 1756년 周煌의 『琉球國志略』에도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은 사료 상에서 赤嶼로 불리는 현재 다이쇼지마(大正島)와 古米山이나 粘米山으로도 불렸던 현재 쿠메지마(久米島) 사이의 수심이 깊은 해역을 가리키는데, 밑줄 ⑤에서 "해질녘에 郊를 지났는데,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해역이 혐난하기 때문에 海神에게 생 돼지와 양을 바다에 던지고 쌀죽과 함께 지전을 태웠던 것이다. 한편, 보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 ⑥부분으로 汪楫이 '郊'의 의미를 문자, "中外의 경계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이곳이 바로 중국과 외국(류큐)과의 경계라는 것을 대답한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료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명확한 사료적 근거가 있음에도 우라노 타츠오(浦野起央)는 "단지, 이러한 (徐葆光의) 변경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지배의 경계로 볼 수는 없다. 즉 항해를 통한 인식과 이해가 그대로 版圖의 확인이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溝'의 의미가 '中外의 界'로서 '경계를 접한다.'고 해석되고 있지만, 그것은 항해루트의 표식으로서 자연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을 가지고 지배의 경계설정을 확인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⁴⁸⁾고 '溝'의 경계설을 비판하고

47) 徐葆光, 『中山傳信錄』 권1, 「後海行日記」(早稻田大學圖書館 소장, 청구 번호:文庫08_c0123, 1721년 序刊本의 麵刻). 한편, 동 사료는 「沖繩の歴史情報研究CD-ROM版(第8巻)」에도 수록되어 있음. "二十日丁巳, 日出, 轉艮寅東北順風. 日中, 轉甲卯, 用辛戌四更. 日入, 轉乙辰風, 大雨. 船共行二十六更半. 是日, 海水見綠色. 夜過溝, 祭海神. 轉巽巳風, 用辛酉三更半, 至明".

48) 浦野起央, 앞의 책, 74쪽.

있다. 하지만, ‘溝’가 단순한 자연적 경계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국가의 경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료 4]의 기술로부터 명확하며, 후술하는 徐葆光의 『中山傳信錄』으로부터도 규명된다.

이와 관련해 하라다 노부오(原田禹雄)도 ‘郊’가 중외의 경계라는 것에 대해 추량일 뿐이며, 여기서 “경계라는 것은 바다의 難所, 즉 落漈라는 더블 이미지를 가진 두려워할 곳으로서 바다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 결코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아니었다는 것도 이 말에서 명백하다.”라고 사료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라다는 사료를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그것은 밑줄 ④에 보이는 바와 같이 “경계는 무엇으로 분별하여 정하는가?”라는 물음에 추량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지난 곳, 즉 ‘郊’는 그곳에 해당되는 곳이며, 억측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단순한 개인의 고집스런 판단이 아니라, 당시 선원들 사이에서 郊라는 지역이 중국과 류큐의 경계로서 인식되고 있었다는 일반적이며 객관적인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郊’를 사이에 두고 조어도제도의 동쪽 끝에 있는 다이쇼지마(大正島)까지는 중국영토, 쿠메지마(久米島)부터는 일본영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조어도제도가 이 당시에 중국영토였다고 추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편, 청대에 들어와 1719년 책봉사절의 일원이었던 徐葆光의 『中山傳信錄』에도 조어도제도 관련기사가 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문헌에 보였던 釣魚嶼라는 명칭 대신에 釣魚臺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쓰이기 시작하는데,⁴⁹⁾ 본고에서 흥미롭게 취급하고 싶은 것은 明代 鄭若曾의 『鄭開陽雜著』에 수록된 「琉球圖」의 오류를 지적한 다음 부분이다.

49) 徐葆光, 『中山傳信錄』 권1, 「前海行日記」. “二十七日己亥, 日出, 丁午風. 日未中, 風靜船停, 有大沙魚二, 見于船左右. 日入, 丁午風起, 至二漏, 轉丁風, 用乙辰針二更半. 天將明, 應見釣魚臺, 黃尾, 赤尾等嶼, 皆不見. 共用卯針二十七更半, 船東北下六更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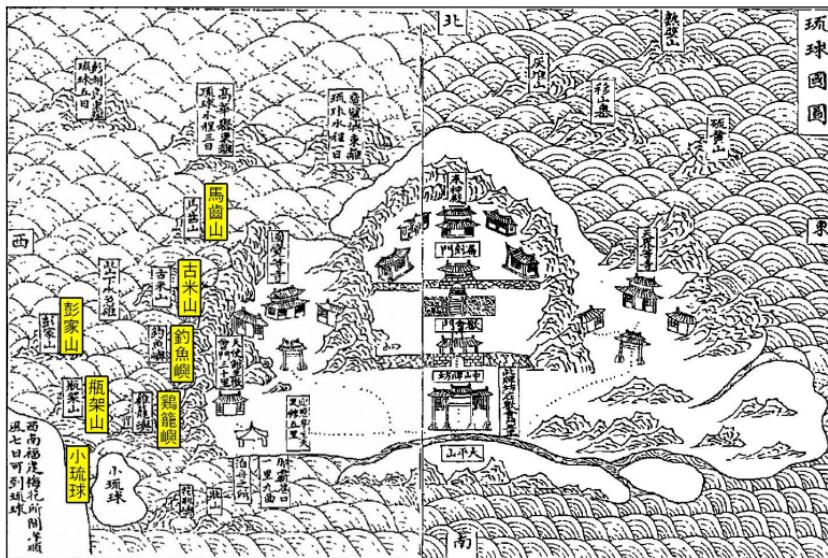
[사료 5]

ⓐ 臣 葆光이 생각건대, 예부터 전해지는 島嶼에는 오류가 심히 많다. 선인들의 使錄에 이미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앞의 명나라 때 『一統志』에서 말하기를, “龜龍嶼는 나라의 서쪽에 있고 물길로 하루가 걸리며, 高華[혹은 英으로 쓴다]嶼는 나라의 서쪽에 있는데, 물길로 3일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2개의 섬을 생각하니, 모두 없다. ⓑ 또 말하기를, “彭湖島는 나라의 서쪽에 있는데, 물길로 5일 걸린다.”고 하는데, 彭湖와 臺灣을 생각하니, 泉州에 가까워 류큐(琉球)의 屬島가 아니다. ⓒ 崑山 鄭若曾의 저술한 「琉球圖」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우선, 針路로서 취한 彭家山·釣魚嶼·花瓶嶼·鷄籠·小琉球 등의 산은 류큐에서 2·3천리 떨어져 있는 것인데, 모두 위치는 姑米山 나하항(那霸港)의 왼쪽 가까이에 있다. 어그러진 오류가 특히 심하다.⁵⁰⁾

[사료 5]의 밑줄 ⓑ부분에서 徐葆光은 예부터 전해져 왔던 島嶼에는 오류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사례로서 밑줄 ⓑ에서는 “彭湖島는 나라(淸)의 서쪽에 있는데, 물길로 5일 걸린다.”고 明代의 『一統志』는 기술하고 있지만, 彭湖와 臺灣을 생각하니, 泉州에 가깝기 때문에 류큐(琉球)의 屬島가 아니라고 그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즉, 臺灣은 독자적인 지역이 아니라,淸의 영토라는 것이다. 또 밑줄 ⓒ에서는 본고에서도 전술한 鄭若曾의 『鄭開陽雜著』에 수록된 「琉球圖」의 오류, 즉 류큐까지의 항로에 위치했던 彭家山·釣魚嶼·花瓶嶼·鷄籠·小琉球 등의 도서지역이 모두 姑米山 나하(那霸) 항구 근처에 표기되어 있으나([지도 5] 참조),⁵¹⁾ 이곳들은 류큐에서 2-3천리 떨어져 있어 그 오류가 특히 심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50) 徐葆光, 『中山傳信錄』 권2, 「封舟到港」. “臣葆光按, 舊傳島嶼誤謬甚多. 前人使錄已多辨之. 前明一統志云, 龜龍嶼, 在國西, 水行一日, 高華[一作英]嶼, 在國西, 水行三日, 今考二嶼, 則皆無有. 又云, 彭湖島, 在國西, 水行五日. 按彭湖與臺灣, 泉州相近, 非琉球屬島也. 崑山鄭子若曾所著, 琉球圖, 一仍其誤, 且以針路所取彭家山, 釣魚嶼, 花瓶嶼, 鷄籠, 小琉球等山, 去琉球二三千里者, 俱位置在姑米山那霸港左近. 舛謬尤甚.”

51) 鄭若曾, 『鄭開陽雜著』 권7, 「琉球國圖」(『四庫全書』). 양쪽을 편집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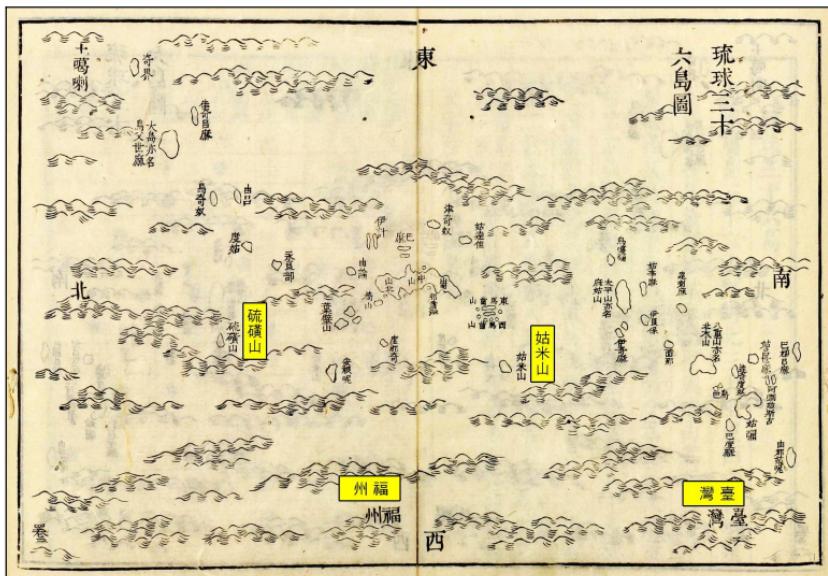
[지도 5] 『鄭開陽雜著』 권7의 「琉球國圖」

이러한 徐葆光의 영토인식은 『中山傳信錄』(권4)의 「琉球三十六島圖」에 잘 나타나 있으며([지도 6] 참조),⁵²⁾ 이것이 바로 류큐의 영토로서 姑米山(현, 쿠메지마[久米島]) 이후 서쪽에 福州와 臺灣을 표기한 것([지도 6]의 하단 부분)은 이 지역이 바로 중국과의 경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그는 『中山傳信錄』(권1)에서 『指南廣義』의 기록을 인용하여 “姑米山[류큐(琉球)의 서남쪽 방면 경계의 鎮山]을 가려면, 單卯針을 이용하고, 馬齒를 가려면 甲卯와 甲寅針을 이용하여 류큐의 나하(那霸) 항구에 들어갈 수 있다.”⁵³⁾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姑米山에

52) 徐葆光, 『中山傳信錄』 권4, 「琉球三十六島圖」. 양쪽을 편집한 것임. 『中山傳信錄』 권4에는 36개의 섬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류큐의 서남쪽 제일 마지막 경계인 姑米山까지만 수록되어 있고, 조어도제도의 섬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3) 徐葆光,『中山傳信錄』卷1,「針路」。[指南廣義云] 福州往琉球,由閩安鎮出五虎門,東沙外開洋,用單[或作乙]辰針十更。取鷄籠頭[見山,即



[지도 6] 『中山傳信錄』(권4)의 「琉球三十六島圖」

대한 설명으로 “류큐(琉球) 서남쪽 방면 경계의 鎮山”이라는 부기를 붙이고 있다. 이 부기는 『指南廣義』의 저자인 程順則이 아니라, 『中山傳信錄』을 저술한 徐葆光라는 것은 이노우에의 연구⁵⁴⁾에 의해 명확히 밝혀졌는데, 이노우에는 ‘鎮’의 의미는 국경이나 마을의 경계를 다스리는 ‘鎮守’의 역할로서, 姑米山은 중국에서 류큐를 왕래할 때의 국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⁵⁵⁾ 이에 대해 전술한 오쿠하라 도시오, 하라다 노부오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 학자들이 이노우에를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료상의 해석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從山北邊過船, 以下諸山皆同], 花瓶嶼, 彭家山, 用乙卯並單卯針十更. 取釣魚臺, 用單卯針四更. 取黃尾嶼, 用甲寅[或作卯]針十[或作一]更. 取赤尾嶼, 用乙卯針六更. 取姑米山[琉球西南方界上鎮山], 用單卯針, 取馬齒, 甲卯及甲寅針, 收入琉球那霸港.”

54) 井上清, 「釣魚列島(尖閣列島等)の歴史と歸屬問題」, 『歴史學研究』381, 1972).

55) 井上清, 앞의 책, 40~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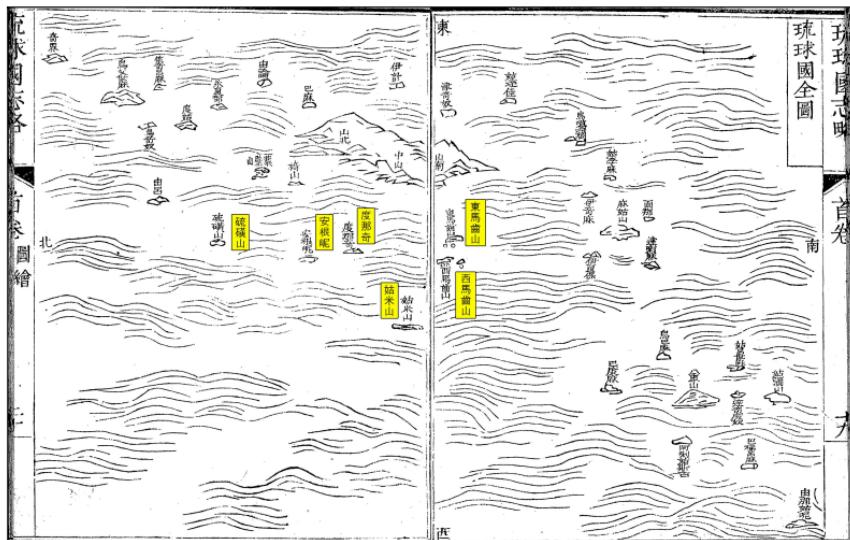
실제로 ‘鎮’은 한자적 의미로도 “요해지나 전략상의 요긴한 곳”이며, 동사로도 “지키다.”를 의미하는데, “류큐(琉球) 서남쪽 방면 경계의 鎮山”이라고 불린 것은 姑米山, 즉 쿠메지마가 류큐의 요해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경의 섬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徐葆光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저술한 『中山傳信錄』에 위와 같은 부기 를 일부러 첨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琉球三十六島圖」에 조어도 제도를 제외시킨 것이다.

결론적으로 『中山傳信錄』의 [사료 5]의 내용과 [지도 6]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본다면, 姑米山 즉 쿠메지마가 류큐의 서남쪽 국경이 되고, 중국 쪽으로 있는 조어도제도는 류큐의 영토가 아니라, 중국의 영토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1756년 책봉사의 일원이었던 周煌의 『琉球國志略』에도 조어도제도에 관한 기술이 보이고 있다. 이때의 책봉사도 鷄籠山 → 釣魚臺 → 赤洋 → 溝 → 姑米山의 항로를 이용해 류큐에 도착하고 있었는데,⁵⁶⁾ 이 사료가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수록된 「琉球國全圖」([지도 7] 참조⁵⁷⁾)이다. 즉, 전술한 徐葆光의 『中山傳信錄』에 보이는 「琉球三十六島圖」([지도 6])와 마찬가지로 姑米山(현, 쿠메지마[久米島])까지를 류큐의 영토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며, 조어도제도는 이 지도상에서 류큐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점은 1616년부터 1785년까지 각종 典章制度와 연혁, 沿革을 건륭제의 명으로 稧璜 등이 1747년에 편찬한 『皇朝文獻通考』의 「琉球」를 설명한 부분에서 “지형은 동서로 협소하고, 남북은 길며, 사방은 모두 바다이다. 海中의 섬이 원근으로 둘러싸여 류큐(琉球)에 속하고 있는데, 무릇 36개의 섬을 관할한다. … 福州에서 그 나라까지는 반드시 姑米山을 바라보고 가야하는데, 이로써 기준으로 삼는다.”⁵⁸⁾라는 기술이 있고, 36개의

56) 周煌, 『琉球國志略』권5(「沖繩の歴史情報研究CD-ROM版(第8巻)」).

57) 周煌, 『琉球國志略』首卷(상동).



[지도 7] 『琉球國志略』(首卷)의 「琉球國全圖」

섬에 조어도제도의 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부터도 중국의 영토라는 것이 증명된다.

한편, 1800년 책봉사 李鼎元의 『使琉球記』에는 조어도제도와 관련해 彭家山 → 釣魚臺 → 赤尾嶼 → 姑米山의 루트가 언급되어 있으며,⁵⁹⁾ 1808년 책봉사 齊鯤·費錫章의 『續琉球國志畧』⁶⁰⁾에는 花瓶嶼 → 梅花嶼 → 釣魚臺 → 赤尾嶼 → 姑米山, 1866년 책봉사 趙新의 『續琉球國志略』⁶¹⁾에는 半架山 → 釣魚山 → 久場島(黃尾嶼) → 久米赤

58) 『皇朝文獻通考』 권295, 「四裔考」, 東, 琉球條(『四庫全書』). “地形東西狹, 南北長, 四際皆海, 海中島遠近環列 屬琉球 轄凡三十有六. … 由福州至其國必望取姑米山, 以爲準.”

59) 李鼎元, 『使琉球記』권3(『沖繩の歴史情報研究CD-ROM版(第8巻)』).

60) 齊鯤·費錫章, 『續琉球國志畧』 권3(『沖繩の歴史情報研究CD-ROM版(第8巻)』).

61) 趙新, 『續琉球國志略』 권2(『沖繩の歴史情報研究CD-ROM版(第8巻)』). 동 사료는 早稻田大學圖書館(請求記號號:ル04_03457)에도 소장되어 있음(온라인 열람 가능).

島(赤嶼)→姑米山의 루트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다만, 李鼎元의 『使琉球記』에 기술된 조어도제도와 쿠메지마 사이, 즉 중국과 류큐 사이의 경계가 되고 있는 ‘溝’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심각한 논쟁이 있어 다음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사료 6]

(10월 6일) 이날, 介山(정사 趙文楷의 호)과 함께 반찬과 술을 갖추어 손님들을 초청하여 술을 마셨는데, 한창 마시고 있을 때에 ① 한 손님이 말하기를, “바다는 서쪽으로 黑水溝와 閩海를 사이에 두고 경계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옛날 명칭은 滄溟 또는 東溟이라고도 말하였는데, 류큐 사람은 모릅니다. 이번 사행에 또한 이곳을 지나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② “도해하는 사람은 많고, 책을 쓰는 사람은 적습니다. 배를 타고 토하지 않고(=배멀미를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지휘하는 곳에 앉아서 친히 그 본 바를 쓰는 것은 특히 적습니다. 한 사람이 창을 하면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서로 응하는데,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말하는 것을 어찌 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③ 류큐 사람은 매년 1번 바다를 건너지만, 黑溝의 법칙을 모릅니다. 즉, 이르자면 黑溝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⁶²⁾

즉, 밑줄 ①를 보면, 李鼎元은 술자리에서 만난 류큐 사람으로부터 류큐의 바다 서쪽으로 ‘黑水溝와 閩海’⁶³⁾를 사이에 두고 경계로 한다는 것을 전해들은 이야기와 함께 류큐 사람은 이곳을 모른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으며, 또 李鼎元 일행이 류큐로 올 때는 ‘溝’를 지나지 않았

62) 李鼎元, 『使琉球記』 권6(『沖繩の歴史情報研究CD-ROM版(第8巻)』). “是日與介山, 具餚酒鑄招從客飲酒酣有客曰, 閩海面西距黑水溝與閩海界. 古稱滄溟亦曰東溟, 球人不知. 此行亦未之過何也. 余曰, 渡海者多著書者少. 登舟不嘔, 日坐將臺, 親書其所見者, 尤少. 率一人倡之衆人和之, 耳食之談, 何可盡信. 球人歲一渡海, 而不知黑溝則. 卽謂無黑溝也.”

63) 黑水溝는 제 기록에 보이는 ‘郊’나 ‘溝’와 같은 지역을 말한다. 閩海는 福建省 지역에 살고 있던 옛 종족의 이름이 ‘閩’이었던 것으로부터 현재 福建省의 앞쪽의 大洋을 가리킨다.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밑줄 ⑬에서는 경험하지 않고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자신의 신조를 언급하고 있다. 때문에 자신이 '溝'를 통과하여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의식 속에서 밑줄 ⑭에서는 류큐 사람의 말을 근거로 '黑溝'라는 것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라다 노부오(原田禹雄)는 李鼎元의 위와 같은 '溝' 인식에 대해 "나는 李鼎元의 이 센카쿠제도 항해의 문장을 사랑한다. 실제로 아름답고 우아한 문장이다."⁶⁴⁾라고 찬미함과 동시에 이노우에 키요시(井上清)의 연구에 대한 비판을 행하고 있다. 더욱이 그는 "바다의 難所라는 의미의 溝를 부정한 李鼎元 단지 한 사람의 체험을 추종하여 그를 전후한 책봉사들이 함께 인정하고 있는 '中外의 界'를 도저히 부정할 수 없다."라고 언급한 이노우에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이것이 국립대학 연구소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는 교수로서 지위와 급여를 받고 있는 입장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나는 이노우에 키요시를 용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학술적인 용어를 스스럼없이 사용하여 비판하고 있다.⁶⁵⁾

그러나 『使琉球記』에 류큐에서 福州까지의 귀로를 기술한 10월 25 일자의 기술에는 "해면을 보니 깊어 검은 색이고, 하늘과 물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즉 이른바 黑溝라는 것인가. 아마도 여기에 온 사람은 모두 남의 말을 그대로 듣고서는 감히 자신이 보지도 않고, 드디어는 거짓으로 기이한 것을 만들어 내는구나. 이 모두 가히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목격한 것은 진실로 다른 이상함은 없었다."⁶⁶⁾라고 하여 '溝'을 통과하고 있었다. 즉, 李鼎元은 류큐와 중국의 경계로서 '溝'의 존재를

64) 原田禹雄, 앞의 책, 102쪽.

65) 상동.

66) 李鼎元, 『使琉球記』 권6(『沖繩の歴史情報研究CD-ROM版(第8巻)』). "視海面深黑, 天水遙接, 豈卽所謂黑溝耶. 抑來者皆耳食未敢親視, 遂妄生奇異耶. 是皆未可知以, 余目擊固無他異."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이노우에(井上)도 하라다(原田)도 李鼎元이 ‘溝’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던 것처럼 판단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李鼎元이 말한 것은 ‘溝’라는 곳은 남들이 말할 때 험난한 곳이고, 이곳에서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무런 특이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위와 같이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溝’은 전절에서도 언급한 汪楫의 『使琉球雜錄』에 보이는 ‘郊’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류큐와의 국경을 의미하는 사실적인 용어이다.

5. 맷음말

지금까지 전근대 시기의 문헌을 중심으로 釣魚島諸島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영토인식을 고찰해 보았는데, 그 논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明代의 조어도제도와 관련된 문헌자료는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 거의 없는 것에 비해 중국에는 류큐로 도해한 책봉사들이 남긴 다수의 문헌을 비롯해 각종 사본과 지도 등이 남아 있으며, 이 기록들을 통해 조어도제도가 중국의 영토로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우선 책봉사 관련 자료에 보이고 있는데, 1534년 陳侃의 『使琉球錄』과 1562년 郭汝霖의 『重編使琉球錄』을 보면, 姑米山(현 쿠메지마[久米島])은 류큐에 속하고 조어도제도의 동쪽 끝에 위치한 赤嶼(현 다이쇼지마[大正島])는 류큐(琉球)와 경계가 된다는 기록이 있어 현재의 쿠메지마와 다이쇼지마 사이가 중국과 류큐의 경계라는 인식이 중국 측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 언급한 일본의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조어도제도를 중국(明)이 지배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영토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明代에 직접적으로 대만을 영토로 편입시키지는 않았지만, 지배의 영

항권 안에 있었고, 더군다나 대만에는 영토권을 주장할 국가 권력이 없었다. 또한, 明代의 해상방어책을 서술한 鄭若曾의 『鄭開陽雜著』를 비롯한 관련 자료에 수록된 「福建界」에도 조어도제도가 포함되어 있어 조어도제도에 대한 영토인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清代에 들어와서도 明代의 조어도제도 인식, 즉 赤嶼와 姑米山 사이를 국경으로서 보는 영토인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미 전술한 바이지만, 1683년 책봉사였던 汪楫의 『使琉球雜錄』에는 赤嶼(다이쇼지마)와 姑米山(쿠메지마) 사이에 ‘郊’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중국과 류큐의 경계로서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郊’라는 것은 국경의 의미로서 여러 문헌에 보이는 ‘溝’과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곳으로 赤嶼 이전까지는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조어도제도의 동쪽 끝에 위치한 赤嶼(다이쇼지마) → ‘郊(또는 溝)’ → 姑米山(쿠메지마)이라는 위치 관계 속에서 ‘郊(또는 溝)’가 국경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719년 책봉사였던 徐葆光가 『中山傳信錄』에서 조어도제도를 류큐 지도 속에 포함시킨 『鄭開陽雜著』를 비판하고, 조어도제도를 전부 누락시킨 「琉球三十六島圖」를 편찬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도 입증된다. 그렇기 때문에 徐葆光는 현재의 쿠메지마가 류큐의 서남단 마지막 영토라는 인식을 가지고 『中山傳信錄』에서 姑米山에 대한 설명으로 “류큐의 서남쪽 방면 경계의 鎮山”이라고 附記한 것이다. 1747년에 편찬된 『皇朝文獻通考』에도 류큐의 부속도서에 조어도제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조어도제도가 류큐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당시 중국(淸)의 영토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조어도제도를 과연 역사적으로 어느 쪽이 먼저 선점하고 영유하고 있었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일본 측에서는 조어도제도에 대한 지배를 명확하게 명시한 기록이 없는 이상, 조어도제도는 전근대 시기에 ‘無主의 땅’으로서 중국이나 대만의 영토가 아니며, 1895년 이후 일본

이 해당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물론, 현재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전근대 시기에 한정해 본다면, 일본에는 전근대 시기에 조어도제도에 관한 사료가 거의 없고, 그나마 남아 있는 서너 개의 사료들 중에서도 조어도제도가 일본 측이나 류큐의 영토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중국 측에는 조어도제도에 관한 수많은 종류의 문헌자료들이 산재해 있음과 동시에 이들 중의 많은 자료들은 이곳을 중국의 경계·영토인식 속에 포함시키고 있어 ‘無主의 땅’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조어도제도에 대한 선점권이 중국에 있든, 대만에 있든, 일본에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또한, 누가 먼저 영유를 주장했는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이미 본고에서 관련 사료로서 입증한 것들이지만, ‘郊’나 ‘溝’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류큐가 경계를 이룬다는 중국 측의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郊’나 ‘溝’의 이전 지역은 중국 땅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판단한다면, 결국 조어도제도는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전후한 시기 이후의 일본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민정책, 특히 1874년 대만침략을 시작으로 한 침략적 팽창정책 속에서 1895년 이후 강제 점유된 지역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근대, 즉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의 조어도제도에 대한 영토인식과 국제 법상의 문제 및 일본의 강제점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참고논저

권태환, 「일·중 영유권 갈등과 전망-尖閣열도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11, 2011.

김명기, 「獨島 問題와 釣魚島 問題의 比較考察」, 『강원법학』 10, 1998.

김선화, 「중·일간 조어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고찰」, 『海事法研究』 19-2, 2007.

남종호, 「중·일 양국의 조어도열도 영유권분쟁과 이어도문제」, 『한중사회과학 연구』 23, 2012.

박정현, 「근대 중국의 해양인식과 영유권 분쟁」, 『아세아연구』 48-4, 2005.

박종귀, 『아시아의 분쟁』, 새로운 사람들, 2000.

이문기, 「중국의 해양도서 분쟁 대응전략」, 『아시아연구』 10-3, 2008.

이은자, 「한중간 영토 분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시아문화연구』 14, 2008.

이정태, 「조어도 분쟁에서 '무주지 선점론'과 '역사주권론'」, 『국제정치연구』 14-1, 2011.

이창위, 「중국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54-1, 2009.

진필수, 「센카쿠(댜오위타이)제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 이시가키시 의회의 과잉 애국심과 지역활성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47, 2012.

최장근, 『일본의 영토분쟁- 일본 제국주의 흔적과 내셔널리즘』, 백산자료원, 2005.

高橋庄五郎, 『尖閣列島ノート』, 青年出版社, 1979.

芹田健太郎, 『島の領有と經濟水域の境界確定』, 有信堂高文社, 1999.

芹田健太郎, 『日本の領土』, 中公文庫686, 中央公論新社, 2010.

保阪正康, 『歴史でたどる領土問題の眞實』, 朝日新書309, 朝日新聞出版, 2011.

保阪正康/東郷和彦, 『日本の領土問題-北方四島, 竹島, 尖閣諸島』, 角川書店, 2012.

夫馬進編, 『使琉球錄解題及び研究:研究成果報告書』, 京都大學文學部東洋史研究室, 1998.

濱川今日子, 「尖閣諸島の領有をめぐる論点－日中兩國の見解を中心に－」, 『調査と情報』 565, 2007.

上地龍典, 『尖閣列島と竹島：中國・韓國との領土問題』, 教育史, 1978.

西里喜行, 「明清交替期の中琉日關係再考－琉球國王の冊封問題を中心に」, 『International journal of Okinawan studies』 1-1, 2010.

孫崎 享, 『日本の國境問題』 ちくま親書905, 筑摩書房, 2011.

奥原敏雄, 「動かぬ尖閣列島の日本領有權－井上清論文の「歴史的虛構」をあばく」(『日本及日本人』 1515, 1973).

奥原敏雄, 「明代および清代における尖閣列島の法的地位」, 『季刊 沖繩』 63, 1972.

奥原敏雄, 「尖閣列島の領有權問題」, 『沖繩』 58, 1971.

奥原敏雄, 「尖閣列島領有權の根據」, 『中央公論』 93-7, 1978.

奥原敏雄, 「尖閣列島領有權の法理－日・中・臺の主張の根據と對立点」, 『日本及日本人』, 1507, 1972).

奥原敏雄, 「尖閣列島問題と井上清論文」, 『朝日アジアレビュー』 4-1, 1973.

奥原敏雄, 「尖閣列島－中國及び臺灣の領有權權論據批判」, 『AFAシリーズ』 78, アジア親善交流協會, 1979.

原田禹雄, 『尖閣諸島-冊封琉球使錄を讀む』, 榕樹書林, 2006.

井上 清, 『「尖閣」列島-釣魚諸島の史的解明』, 現代評論社, 1972.

平松茂雄, 『中國はいかに國境を書き換えてきたのか』, 草思社, 2011.

浦野起央, 『尖閣諸島・琉球・中國-日中國際關係史』, 増補版, 三和書籍, 2010.

豊見山和行, 『琉球王國の外交と王權』, 吉川弘文館, 2004.

2. 참고사료

『明史』, 『使琉球錄』(陳侃), 『重編使琉球錄』(郭汝霖), 『使琉球錄』(蕭崇業/謝杰), 『使琉球錄』(夏子陽), 『使琉球紀』(張學禮), 『使琉球雜錄』(汪楫), 『琉球國志略』(周惶), 『使琉球記』(李鼎元), 『續琉球國志略』, 『續琉球國志畧』(齊鯤/費錫章), 『鄭開陽雜著』(鄭開陽), 『中山傳信錄』(徐葆光).

【日文抄錄】

前近代時期の「釣魚島諸島」に対する中・日の領土認識考察

申東珪

本稿は前近代時期に限定し、中国と日本が釣魚島諸島に対して、如何なる領土認識を持っていたかを考察したもので、その要点を二つに整理してみると、次のようになる。

第一は、明時代に琉球へ派遣された冊封使などの諸記録をみると、中国には釣魚島諸島に対して中国領土としての認識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特に、1534年の陳侃の『使琉球錄』と1562年の郭汝霖の『重編使琉球錄』によれば、姑米山(現、久米島)は琉球に属し、釣魚島諸島の東端に位置する赤嶼(現、大正島)は琉球との界になるという記録がある。つまり、釣魚島諸島の8個の島嶼のなかでもっとも東端にある赤嶼が琉球の界という認識は、釣魚島諸島が中国側の領土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ことであり、また明時代の海上防禦策を述べた鄭若曾の『鄭開陽雜著』に記載された「福建界」を見ても釣魚島諸島が含まれていたので、釣魚島諸島に対する領土認識の存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は、清代に入っても明代の釣魚島諸島に対する認識、すなわち赤嶼と姑米山の間を国境として見なす領土認識がさらに強化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は1683年の冊封使であった汪

楫の『使琉球雜錄』を見ると、赤嶼(大正島)と姑米山(久米島)の間に「郊(または溝)」という場所を中国と琉球の境目として認識しており、なお1719年の冊封使節の一員であった徐葆光が『中山傳信錄』のなかで姑米山について説明しながら「琉球西南方界上鎮山」と附記していたことからも分かる。このような資料を通じて前近代時期の釣魚島諸島は「無主の地」ではないことが確認できるだろうし、領土問題として釣魚島諸島に関する先占権は、既に前近代時期において中国が先に確保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

【主題語】

釣魚島, 釣魚島諸島, 尖閣諸島, 久米島, 領土認識, 琉球冊封使, 使琉球錄, 中山傳信錄, 鄭開陽雜著.